

“색다른 재미” vs “마블영화 맞아?”

로튼토마토·IMDb 등 평점 차 커
국내 온라인 평점도 호불호 갈려
“넓어진 세계관에 진입장벽 높아
대중영화서 마니아용으로 변화”

빠른 흥행세를 그리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닥터 스트레인지2)가 뚜렷한 호불호 평가를 받고 있다. 스토리의 확장을 바탕으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색다른 슈퍼 히어로를 그려냈다는 호평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마블 영화의 색깔을 잃어버렸다는 혹평이 혼재하고 있다.

● “아이들은 즐기지 못하는 히어로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4일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2’는 12일 만인 15일 500만 관객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12일 400만 관객을 돌파한 지 3일 만이다. 갑열병 사태 이후 개봉작 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관객의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특히 ‘이블데드’ 등 공포 장르에서 재능을 발휘해온 샘 레미 감독이 영화 전반에 녹여놓은 공포 요소에 대해 평가가 나뉘고 있다. “새롭고 신선하다”는 호평도 있지만, “히어로 영화와 어울리지 않게 지나치게 공포스럽다”, “끔찍한 비주얼



마블 스튜디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에 대한 관객과 평론가들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얼 때문에 즐기기가 힘들었다” 등 부정적인 리뷰도 넘쳐난다.

온라인 평점으로도 드러난다. 직전 개봉한 마블스튜디오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네이버와 왓차에서 각각

9.11(10 만점)과 4(5 만점)를 기록한 것과 달리 7.6과 3.3에 그치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와 IMDb에서도 각각 74%(100% 만점)와 7.4(10점 만점)를 기록, 기대 이하

의 평점을 받고 있다. 한 로튼 토마토 이용자는 “마블을 사랑해온 아이들에게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영화다. 마블은 아이들이 1년 동안 꿈 악몽은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 “드라마까지 봐야 해?”

이야기가 너무 확장돼 이전 설정을 알지 못하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도 혹평의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닥터 스트레인지2’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를 통해 공개된 9부작 드라마 ‘완다비전’의 연장선상 작품이다. ‘완다비전’을 보지 않은 관객이라면 영화 속 빌런인 완다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다. 미국 주간지 월라멧 위크는 “‘완다비전’과 그 밖의 많은 스트리밍 시리즈를 위한 장면광고 같은 영화”라고 혹평했다.

이는 앞으로 나올 마블스튜디오의 슈퍼 히어로물의 새로운 과제로 꼽힌다. 앞선 수십 편의 영화로 서로 이어지는 설정과 연관 스토리로 이른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구축해온 마블이 디즈니+의 드라마 시리즈를 통해 이를 더욱 방대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다수의 관객이 즐겨온 마블의 슈퍼 히어로물이 점점 드라마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마니아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종이의 집’ 한국판, 공개하기도 전에 해외서 난리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매스컴들 일제히 보도
김윤진·박해수 등 집중 조명
“원작과 어떻게 다른지 관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스페인 ‘종이의 집’의 한국판이 내달 공개를 앞두고 해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의 공개일이 6월 24일로 확정되자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매체들이 흥행 여부, 원작과 차이점 등에 대해 잇달아 보도했다. ‘오징어게임’과 함께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시리즈 중 최고 히트작으로 꼽히는 원작의 인기와 ‘케이(KK) 콘텐츠’를 향한 세계적인 호기심이 더해진 덕분이다.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은 지난해 12월 원작이 시즌5 파트2로 종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커졌다. 2017년 시즌1을 내놓은 ‘종이의 집’은 ‘교수’라 불리는 천재적 캐릭터가 8명의 범죄자를 모아 스페인 조폐국과 중



6월 24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이 벌써부터 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넷플릭스

앙은행 등을 터는 내용이다. 한국판은 ‘교수’(유지혜)와 강도들이 뭉치는 원작의 설정을 따르고 통일된 앞둔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콘텐츠 리뷰 전문 매체 TV

시리즈이탈리아는 한반도의 남북 갈등이 긴장의 요소로 새롭게 추가된 한국판에 대해 “원작을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해 바꿀 것인지 기대를 모은다”고 썼다. 스페인 매체 카테나SER은 “‘종이의 집’이

막을 내리기 한 달 전인 올해 1월 한국 시리즈의 예고가 등장해 놀라웠다”며 원작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한국판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극중 핵심 소품인 마스크는 2017년부터 넷플릭스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드라마의 공통된 소재”라며 한국판에 등장할 하회탈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원작에서는 스페인의 미술가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을 본뜬 가면이 사용됐다. 프랑스 대중문화 전문지 콘비니는 “강도단이 쓰는 마스크는 한국 전통 가면”이라며 하회탈을 ‘hahoetal’로 표기해 소개했다.

‘오징어게임’의 박해수, 미국드라마 ‘로스트’의 김윤진 등 해외에 이름을 알린 배우들도 화제의 원동력이다. 프랑스 콘비니와 이탈리아 티비소시리 등은 강도단 일원인 ‘베를린’과 경찰 역할을 각각 맡은 박해수와 김윤진을 필두로 전종서, 장윤주 등 출연자들의 해외 활동상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백현주 이탈리아 피사 통신원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게임’과 ‘종이의 집’ 원작에 이어 새로운 글로벌 흥행작이 나올 수 있을지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기대가 높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사생활 논란’ 김선호 컴백 잔걸음

7월 ‘터칭 더 보이드’로 연극 복귀
영화 ‘슬픈 열대’도 해외촬영 마쳐

지난해 10월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김선호가 7개월 만에 SNS를 재개하고 연기 무대에 다시 선다. 그의 복귀를 반기는 시선과 비판의 시각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김선호는 자신의 생일을 하루 앞둔 7월 7개월 만에 SNS를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해서 미안하다”며 “올해 생일도 너무 과분하게 축하해주셔서 감

사하다. 전해주시는 마음들 소중히 기억하고 응원해 보답할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고 팬들에게 인사했다. 같은 날 팬카페인 ‘선호하다’에도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담은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팬들 덕분에 나의 시간은 점점 돌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활동 의지도 밝혔다.

이에 그의 복귀를 반기는 국내의 팬들의 응원 댓글이 20만 개 가까이 달렸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너무 이른 복귀”라며 비판하는 게시글도 넘쳐나고 있다.

엇갈리는 반응 속에 김선호는 7월 8일 막



김선호

을 올리는 연극 ‘터칭 더 보이드’로 활동 복귀 소식을 전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대한 설산에 갇힌 영국인 산악가의 생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주인공이다. 앞서 김선호는 주연작 tvN ‘갯마을 차차차’의 성공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지난해 10월 “임신 중절을 중용하고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는 전 연인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고정 출연 중이던 KBS 2TV ‘1박2일 시즌4’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두 편의 영화 캐스

팅도 취소됐다.

활동을 중단하고 두문불출하던 김선호는 올해 3월 말 태국으로 출국해 영화 ‘슬픈 열대’ 촬영을 한 뒤 4월 1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당시 공항에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기도 했다. ‘슬픈 열대’는 ‘신세계’, ‘마녀’ 등을 만든 박훈정 감독의 연출작으로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 이후에도 그의 캐스팅을 변경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다.

연극 관계자는 “한때 ‘대학로의 아이들’로 통했던 김선호가 연극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 초심을 찾겠다는 의지이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스트릿 우먼 파이터

‘스우파 리더즈’ 귀하신 몸! 음악·예능프로 섭외 1순위

아이키·가비·리정 ‘해의 댄스 버스킹’ 녹화
모니카·허니제이 ‘퀀텀2’ 안무가 특별 참여

모니카, 허니제이, 아이키, 가비, 리정, 노제, 효진초이, 리헤이 등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의 ‘리더’들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스우파’에서 각 크루를 이끈 이들은 ‘스우파 리더즈’로 불리며 다양한 음악·춤 소재 예능프로그램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이들이 24일 첫 방송하는 댄스 오디션프로그램 ‘비 엠비셔스’(Be Mbitious)에 함께 출연한다. 1월 ‘스트릿댄스 걸스 파이터’에 이은 ‘스우파’ 후속 시리즈다.

또 권영찬 책임프로듀서 등 제작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여름 방송 예정인 ‘스트릿 댄 파이터’ 제작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뭉치’들의 경연을 다뤄 6월 중 방송하는 엠넷 ‘뭉치’의 역습’에도 다 함께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춤은 잘 못 추지만 끼와 흥이 넘치는 참가자들을 선발해 댄스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1차 예선 심사를 마쳤다.

각자 활동도 펼친다. 아이키와 가비, 리정은 6월 3일 첫 방송하는 JTBC ‘플라이 투 더 댄스’를 통해 미국에서 댄스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과정을 선보인다. 모니카와 허니제이 등은 최근 엠넷 걸그룹 경연프로그램 ‘퀀텀2’에 특별 안무가로 참여해 비비지, 케플러 등 걸그룹들을 만났다. 연예활동이 잦아지면서 저마다 소속사를 찾아 활동 기반을 새로 마련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손담비 “공효진 등 절친과 불화설 사실 아냐”



손담비

13일 이규혁 스피드스케이팅 감독과 결혼식을 올린 가수 손담비가 정려원, 공효진, 소이 등 연예계 절친들과의 불화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손담비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좋은 날에 터무니없는 말이 너무 많다.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이라고 글을 썼다. 앞서 두 사람의 결혼식에 정려원, 공효진, 소이 등이 불참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하객으로는 백지영, 인교진·소이현 부부, 안영미, 박나래 등이 참석했다. 부케는 강승현이 받았다.

돈스파이크, 내달 4일 결혼…신부는 비연예인



돈스파이크

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김민수·45)가 6월 4일 결혼한다. 돈스파이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청첩장 사진을 올린 뒤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고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고 밝혔다.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이다. 1996년 밴드 포지션 객원 멤버로 데뷔한 돈스파이크는 MBC ‘나는 가수다’에서 김범수의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알렸다.

‘국민 MC’ 송해, 건강 이상으로 다시 입원



송해

‘국민 MC’ 송해(95)가 건강 이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송해는 현재 위중한 상태는 아니지만 고령인 탓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월에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최근 건강을 회복해 10일부터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로 복귀했다.